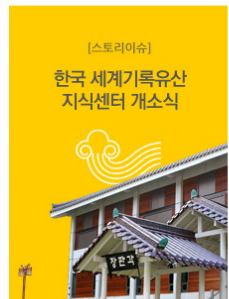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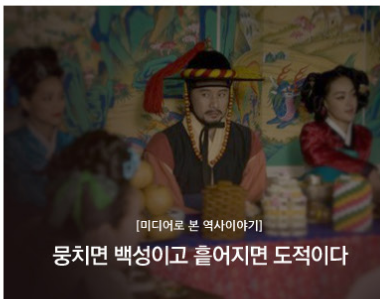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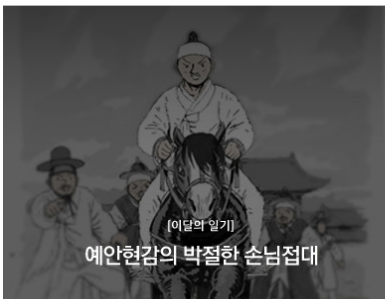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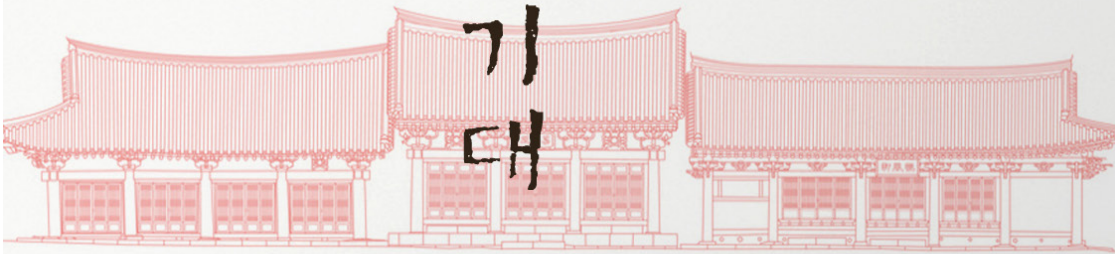


# 평지 가방관, 와관, 기 대

52  
webzine  
담談

2018.06



# 담談

소리를 내어 읽으면 '담담'

뜻으로 보자면 '이야기와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이를 떠들썩하지 않고 단정하게 표현하고자 하며 여기에 옛 정신과 현대 정신의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하려는 의지를 담은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은 매달 선정된 주제에 따라 관련 이야기 소재를 스토리테마파크에서 선별하여 창작자들에게 소개하고, 창작자들은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모티프로 자유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웹진에 선보입니다.

'담談'은 2014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달 1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 6월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열망이 세상을 바꾼다

공병훈

지구라는 행성의 북반구는 6월에 낮이 가장 긴 날들의 시기입니다. 6월의 라틴어 “juniores”는 젊은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슬픈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달이기도 하지만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은 군사정권으로부터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은 남북의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 선거에 참여하고 선출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조선에서 관료는 왕의 통치체제를 운영하는 이들이었으며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마찬가지로 관리들은 과거제도를 통해 뽑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거 제도는 지역별로 할거하고 있던 귀족이나 권력을 지닌 세력이나 기득권을 지닌 전통적 세력을 대한 견제하고 왕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목민관(牧民官)을 구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구성원들을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왕의 통치를 실행할 인재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실행할 인재를 뽑는 의미겠지요. 조선의 목민관은 임금의 책임지고 선출하여 효율적이며 청렴하게 일하도록 관리할 수도 있었지만 자주 부정부패에 빠지거나 탐관오리로 전락하여 백성들을 압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선배와 학생들이 공부를 생활화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삼은 관점은 올바른 목민관이 되고자 하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월진의 주제는 “지방관”입니다.

이정철 선생님은 유학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나라의 주권을 통치하던 국왕이지만 그 정당성은 민생(民生)과 안민(安民)에 있지 국왕의 절대 권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십니다. 국왕을 대신하여 민생에 가장 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수령과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관찰사였습니다. 조선시대 수령의 주요 업무였던 수령칠사(守令七事)이던 농상성(農桑盛, 농업과 양잠에 힘씀), 호구증(戶口增, 호구를 증가시킴), 학교흥(學校興, 학교를 일으킴), 군정수(軍政修, 군정을 정비함), 부역균(賦役均, 부역 부과를 균등하게 함), 사송간(詞訟簡, 사송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결함), 간활식(奸猾息,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을 설명하십니다.

서정화 선생님은 ‘바다 끝에서’라는 글을 통해 퇴임을 앞둔 기관장의 이야기를 창작 시나리오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글을 읽으면서 한 편의 영화를 상상하며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해 주셨습니다. 글에 나오는 에릭 사티(Erik Satie)의 명곡 짐노페디(Gymnopedi)는 비 내리는 6월의 어느 날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시를 읊조리는 것처럼 반복되는 선율, 애잔함과 송고함을 담은 음악에 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심리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달의 일기에서는 김령의 『계암일록』에 나오는 ‘예안현감의 박절한 손님접대’에 대한 내용을 정용연 작가님의 그림과 함께 담아주셨습니다. 예안현감 때문에 관노가 말을 타고 사창가를 달려갈 지경으로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명분은 크게 문란해져 다시 어찌 해 볼 수가 없는 몸

쓸 땅이 되어버린 예산현 고을에 대한 일기 내용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고 나면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인사 청탁과 뇌물 수수에 대한 뉴스를 들어야 하는 현실들이 오버랩 되게 하는 글입니다.

홍윤정 작가님의 미디어로 본 역사 시리즈 ‘몽치면 백성이고 흠어지면 도적이다’의 글에서 2010년 개봉 영화 <방자전>의 목민의 꿈을 내려놓은 관리 변학도와 2대, 3대를 이어 아전 노릇을 해온, 지방의 유지, 터줏대감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주셨습니다. 탐관오리와 지방 토호의 작당으로 땅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긴 백성들은 결국 도적떼가 되는 것 외엔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4년의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의 땡종과 양반, 평민, 백성이 뒤섞인 도적떼 군도의 시원한 활약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해빈 선생님의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에서는 조선시대 관아와 수령의 직무 공간이자 생활 공간 이던 동헌, 객사, 내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던 물건들인 유척과 소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유척 답사 여행에서 자주 접하는 동원, 객사, 내아를 보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웹진의 스토리이슈에서는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개소식’을 전합니다. ‘만인소’가 2018년에 아태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한국국학진흥원은 세계가 인정한 기록유산 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기록유산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목판아카이브, 한국의 편액, 만인소 등의 기록 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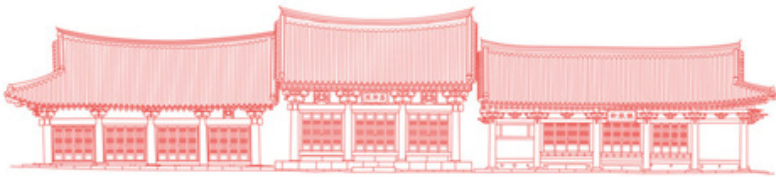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6월 1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이산가족의 아픔이라는 분단 70년이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부정부패로 민주주의를 압제하던 어둠의 시대가 저물고 어슴푸레한 빛으로 새벽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둠에 잠긴 민중들의 심정을 노래한 1996년 드라마 임궽정의 주제곡 ‘이 나라 이 강산’의 가사와 함께 새벽에 대한 소망을 공유합니다.

이 나라 이 강산에 이 몸이 태어나  
삼베옷 나물 죽으로 이어온 목숨  
기구하여라 고단한 세월  
타고난 굴레는 벗을 길이 없어라  
달은 기울고 별빛조차 희미한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않는 세상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않는 세상  
슬퍼 말어라 티끌같은 세상  
슬퍼 말어라 이슬같은 인생  
대장부 가는 길에 무슨 한이 있으리

## 조선시대 수령의 주요업무, 수령7사(守令七事)

조선왕조는 국왕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王國'이었지만, 유학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두 가지는 얼핏 서로 대립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유학에서 통치권의 정당성은 민생(民生)과 안민(安民)에 있지 국왕의 절대 권력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역성혁명을 정당화하는 곳이 바로 이 둘의 충돌 지점이다. 그는 백성이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명확히 천명했다. 때문에 명목적으로든, 아니면 상투적으로든 조선 국왕은 끊임없이 백성의 안위를 염려해야 했다. 국왕의 권력을 신에게 받았다는 서양의 '왕권신수설' 같은 주장이 조선에서는 나올 수 없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조선시대 연대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다. 민생에 가장 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수령과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관찰사라는 말이다. 이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국왕과 조정 대신들은 민생에 간접적일 뿐이라는 뜻이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왕이라면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 새로 임명받은 수령이 임지로 출발할 때 국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곤 했다. 국왕의 그런 행동은 상투적이거나 의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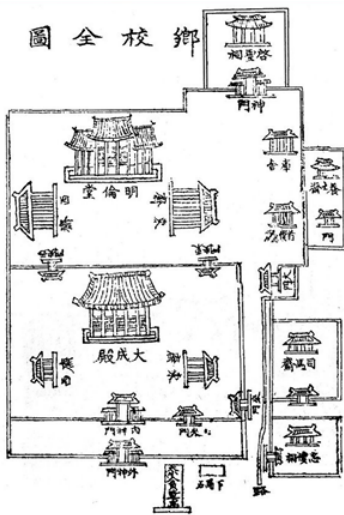
영월 관아 시설 중 객사 '관풍헌(觀風軒)' 도면  
객사는 중앙집권적 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 시설  
©한국국학진흥원

중앙정부가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을 행정적 사법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것이 한국인들 눈에는 자연스럽다. 길게 보면,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이래 1995년 지방자치제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선거로 뽑기까지 장구하게 이어진 행정 관행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일반적인 일도, 쉬운 일도 아니다. 유럽의 봉건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의 지배를 지방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긴 세월 지배한 세력이 있게 마련이었다. 영지 내 사람들에 대한 영주의 통치가 공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왕권신수설'은 괜히 나왔던 게 아니다.

널리 알려졌듯이 조선시대 수령의 주요 업무를 요약한 내용이 ‘수령7사(守令七事)’이다. 수령이 관할 지역을 다스림에 있어서 힘써야 할 사항들이다. ‘수령7사’는 조선시대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고려시대에 ‘수령5사’가 있었다. ‘수령7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406년(태종6)인데, 『경국대전』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의 ‘수령7사’가 실록에 등장하는 것은 더 나중인 1483년(성종 14)이다. 말하자면 ‘수령7사’ 내용의 일부는 이미 고려시대에 시작되었고, 그 내용도 조금씩 바뀌다가 15세기 후반에 확정되었던 것이다. ‘수령7사’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오랜 진화 과정의 결과였고, 조선의 지방행정이 최종적으로 도출한 핵심내용이다. 그랬기에 그것은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수령7사’의 내용은 이렇다. 농상성(農桑盛, 농업과 양잠에 힘씀), 호구증(戶口增, 호구를 증가시킴), 학교흥(學校興, 학교를 일으킴), 군정수(軍政修, 군정을 정비함), 부역균(賦役均, 부역 부과를 균등하게 함), 사송간(詞訟簡, 사송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결함), 간활식(奸猾息,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이 그것이다. 이 7가지는 다시 세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다.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부역균은 행정, 사송간, 간활식은 사법, 그리고 군정수는 군사 영역이다.

‘농상성’이 ‘수령7사’의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당연하다. 농업은 조선의 기간산업이다. 더구나 고려 말의 외침과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비록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지만, 백성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헛일에 불과했다. 새로 세운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상성’이었다. 지방관이 현지에 부임하기 전에 세종이 그때마다 불러서 가장 강조했던 것 역시 ‘농상성’이었다.



나주향교 배치도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교육 기관으로  
수령은 향교 설립과 관리, 교육 전반을 관리했다.  
©나주향교

‘호구증’은 민생의 지표였다. 적어도 수령의 관할 지역에서 호구수가 증가했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삶의 조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뜻한다. 근대사회 이전 사람들은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흉년이 들거나, 심각한 자연재해가 들면 사람들은 살던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세금이 고르지 않거나 지나쳐도 마찬가지였다. 살던 자리에서 죽거나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어찌되었는지 살던 곳을 지켜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조건이 악화되었음을 뜻한다. 조선은 그 일차적 책임을 수령에게 물었다. 수령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평시에 구휼물자를 준비해야 했고, 그렇지 못하면 중앙정부에 요청해서라도 물자를 끌어와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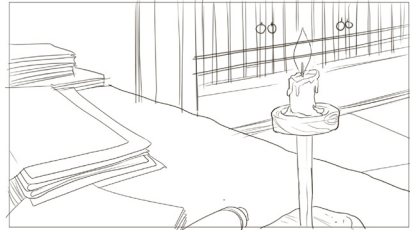
‘학교흥’과 ‘군정수’는 고려시대 ‘수령5사’에는 없던 내용이다. 조선은 이 두 가지 사항을 새롭게 강조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이미 학교의 설치를 강조하였다. 사실상 조선 국가기구의 기틀을 잡은 태종은 태종 이상으로 학교 설치에 온 힘을 쏟았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 설치를 강조했던 것은 국가의 지배이념을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던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수령들은 향교 설립, 향교 건물의 수리, 향교 학생의 모집과 그들에 대한 교육 내용 등을 점검하고 보고해야 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령이 책판(冊板)을 제작하여 서책을 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방 향교에서 책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학교흥’과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일이다. 잘 나가던 중앙의 관리가 지방 고을 수령으로 자원해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자기 조상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이다.

수령은 한 고을에 대해 전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행정, 사법 권한과 함께 군사문제에 대한 권한도 가졌다. 이 권한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백성들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수령이 반드시 행겨야 하는 군사적 업무는 얼핏 생각해도 여러 가지이다. 군적(軍籍) 작성, 군사 총원, 병사를 시기에 맞춰 서울과 변경으로 보내는 일, 군대 훈련, 군기(軍器) 제작과 관리, 성 쌓기 등이 그것이다. 모두 성인 남성들에게 물자를 거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그들을 먼 곳으로 보내는 일이다. 성인 남성과 관련되니, 당연히 그가 가장인 한 가족 모두와 관련된 일이었다. 공정하지 않거나, 조금만 지나쳐도 백성들이 받는 부담과 고통은 대단히 커지는 일들이었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 모든 사항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군정수(軍政修)’가 되는 것이다.

수령은 사송(詞訟)과 옥송(獄訟)의 재판에 관장했다. 전자가 개인 간 사적 분쟁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강도, 살인, 반역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사송은 민사사건에, 옥송은 형사사건에 가깝다. ‘수령7사’에서 옥송이 아닌 사송을 강조한 것은 조선정부가 백성들 삶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옥송보다는 사송이 훨씬 자주 발생하고, 백성들 삶과 깊



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송은 대부분 재화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전답(田畵)·전택(田宅)·산지(山地)·노비(奴婢) 등에 관한 것과 상속(相續)·처첩(妻妾)·혼인(婚姻)·양자(養子) 등 신분상 문제들이었다. 수령의 심리는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사송과 옥송의 처결 기한이 규정되어 있다. 재판에 필요한 문서가 모두 제출되고 증거가 모두 도착한 날로부터 사죄(死罪)는 30일, 도(徒)·유형(流刑)은 20일, 태(笞)·장형(杖刑)은 10일을 기한으로 했다.

‘수령7사’의 다른 항목들이 그 항목명만으로 내용이 곧 짐작되는 것에 비해서 ‘간활식’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수령7사’ 항목의 내용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 ‘간활식’은 강력한 재지세력에 대한 억제를 뜻했다. 강력한 재지세력으로 흔히 두 범주를 들 수 있는데 향리(鄕吏)와 품관(品官)이 그들이다. 향리는 지역에 뿌리박은 채 행정실무를 장악한 사람들이다. 또 품관은 현직에 있지는 않지만 관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들이 법을 어기고 사사ροι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에 대한 질타와 고발이 가득하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전국 모든 행정단위에 수령을 보내어 다스렸다. 얼핏 보면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고려시대보다 훨씬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오랜 세월 권세를 유지해온 지방 세력을 일시에 제압할 수는 없었다. 물론 건국 초창기인 15세기에는 중앙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들의 도움이 없이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속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었다. 결국 16세기가 되면 중앙정부도 제지



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인정의 대가로 수령은 어느 정도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재지세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경계의 시선을 유지했다. 그것이 바로 ‘간활식’이다.

얼마 뒤면 민선 7기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6·13 지방선거이다. 지금 한국이 과거의 조선이 아니듯이 이번에 뽑히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수령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살림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조선시대 고을 수령이 해야 할 일의 중점은 ‘수령7사’에 담겨있다. 오늘날은 어떨까? 얼핏 봐도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

## 작가 소개

### 이정철



조선시대의 경제 정책인 대동법에 대해서 연구했다. 제도 변동을 통해서 제도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 <대동법, 조선최고의 개혁>,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등이 있다.



# 바다 끝에서

## 1. 미화원들의 대화

긴 복도를 청소하던 짙은 남색 옷의 여자가 물기 짝 짜낸 대걸레를 발끝으로 꼭꼭 누른다. 바닥 청소용 대걸레라고 부르기에겐 하얗고 깨끗하다. 그녀는 땀이 흐르고 있는 코끝에 걸린 붉은 안경을 고무장갑 낀 손등으로 치켜 올린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요. 언니, 관장님이 좀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관이 자리 잡고 편안할 만하다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유리난간을 닦던 여자가 허리를 펴고 뒤돌아선다. 크지 않은 체구이지만 몸놀림이 빠르고 건강해 보인다. 머릿수건을 풀어 홍조를 띤 얼굴의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쉰다. 돌은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러게 말이야. 어수선한 행정문제나 직원들 복지, 노조문제, 예산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게다가 기관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관람객이 얼마나 늘었어? 그런데도 정치적인 일은 절대 안 하시고 말이야. 보기 드문 분야야. 난 있지, 관장님이 우리 미화원들 공간을 지상에 마련해 주신 것에 감동받았잖아.”

“맞아요. 우리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건물 안팎 청소하고 쉴 만한 곳이 없었잖우. 기껏 신다는 곳이 화장실 아니면 지하 창고였잖아요. 그런데 마음 편하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자부심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관장님이 이곳에 부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한갓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나이드는 미화원은 땀을 닦은 머릿수건을 다시 머리 위로 둘러 묶는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 연약하고 불품없는 기관의 소모품에 불과했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 이런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손에 든 걸레를 탁탁 털며 언성을 조금 높인다.

“네. 그랬죠. 전요, 관장님이 위아래 직원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분일 줄 몰랐어요. 왜 그... 인상은 좀 ...”

“세상에, 벌써 흰하게 날이 밝아오네. 이 사람아, 입 다물고 얼른 정리하세.”

손걸레를 든 미화원이 다시 돌아서며 말을 끊는다.

그녀들의 꼼꼼하고 빠른 걸레질로 긴 복도는 늘 청결했다. 연구동 1층 로비에서 3층까지가 그녀들이 담당하는 공간이다. 검푸른 창 너머로 전시동이 보인다.

8년 전, 미화원 6명이 연구동과 전시동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12시간을 청소하면서 쉴 공간조차 없었다. 화장실이 있는 연구동과 전시동을 청소하는 여자 미화원들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다. 마당이나 주차장을 청소하는 남자 미화원들은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다. 주차장 구석이나 창고에서 박스를 깔고 쉬어야 했다. 추운 겨울에는 더욱 고생이었고 남자 미화원들 중에 그만두는 사람이 더러 있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관장은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미화원들의 근무환경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물론 처음부터 관장의 행보가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행정직원들 중에는 관장의 제안에 반대하며 볼멘소리를 뒤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규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에 쓰이는 예산도 부족한데 계약직 미화원들의 휴식공간까지 새로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일의 가치를 직급과 돈으로 따지지 말라는 관장의 굳센 의지에 곧 설득되고 말았다.

미화원들은 진심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환경에 만족하며 관장을 존경했다. 몸을 쓰는 고달픈 일이지만 마음은 늘 즐거웠다.

## 2. 퇴임식 준비

넓은 직원식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한다. 창가의 식탁은 모든 부서 사람들이 서둘러 차지하는 곳이다. 다음으로 벽 쪽의 식탁이 산만하게 채워진다. 식당을 동서로 분리하는 긴 줄은 순식간에 짧아지기도 하고 더디게 줄어들기도 한다. 12시 30분이 되면 창가의 식탁이 비워지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진다.

배식판을 채우는 소리와 반찬통을 들고 나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숟가락 떨어뜨리는 소리, 젊은 직원들이 선배에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린다.

배식판을 반납하는 벽 쪽 식탁에는 기획과 직원들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허과장이 먼저 일어나며 배식판을 든다.

“우선, 감사패를 만들고 나머지는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좋겠어.”

권 연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 연구관을 바라본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돌려보겠습니다.”

식탁에는 권 연구관과 구 연구관 그리고 연구사 3명이 남는다. 작은 체구의 마른 김 연구사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속삭인다.

“저, 차라도 가져올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거 먼저 치우자.”

권 연구관이 배식판을 들고 일어선다. 모두들 그의 뒤를 따라 배식판을 반납하고 자리로 돌아온다. 표정들이 그리 밝지는 않다. 김 연구사가 커피와 녹차를 종이컵에 담아 온다.

“죄송하지만, 취향을 잘 몰라서요. 그냥 골고루 가져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난 커피.”

“난, 착한 녹차.”

권 연구관 다음으로 구 연구관이 선택을 한다.

“구 연구관님, 어젠 커피 드셨잖아요. 어제는 착한 커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 연구사가 커피 잔을 입에 문채 의자를 당긴다. 그 옆의 민 연구사와 김 연구사는 서로에게 녹차를 건네며 정반을 치운다.

“자, 관장님 퇴임식에 뭐 특별한 이벤트를 해보자. 난 정말 이제 너무 늙어버렸어. 생각이 고갈 되었다고나 할까?”

“음. 권 연구관은 전에도 그랬지.”

“구. 무슨 소리하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이런 모습 착하지 않아.”

“내 생각엔 금전적인 거 말고 추억이 될 만한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권 연구관은 머리를 식탁에 댄 채로 구 연구관의 어깨를 친다.

“구. 내가 이런 말 안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거야. 제발.”

권 연구관은 특유의 목소리로 양알된다.

“아, 그래? 이미 얘기가 됐었군. 하하.”

구 연구관은 머리숱 없는 정수리를 굵적이며 겸연쩍게 웃는다. 선한 웃음이다. 그 옆에 있던 김 연구사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저, 노조가 아니라 전체 직원들 대상이죠?”

“물론이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런데 관장님 연임은 안 되는 거래요? 관장님께서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장님을 더 모시고 싶어요.”

정 연구사가 권 연구관과 구 연구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묻는다. 권 연구관이 엄숙한 얼굴로 나지막하게 대답한다.

“관장님께서 고사하셨어. 지난 번 우리가 연임 관련해서 의견을 올렸잖아. 장관님께서 관장님의 의견을 직접 물으셨나봐. 그런데 퇴임하기로 결정하셨대.”

“왜요?”

연구사 3명이 입을 모아 합창을 한다.

원 연구관과 구 연구관은 동시에 어깨를 올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 멀리 창가에 앉아있던 차 실장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난다.

### 3. 좋은 벗

비 오는 날, 미술관 주변은 조용하다. 부산스러운 도로와 달리 오래된 공원이나 궁, 미술관은 사람의 발길이 드물다. 커다란 검은 색 우산을 쓰고 담장 없는 미술관 주변을 아주 느리게 걷는 이가 보인다. 마치 우산을 든 조형물처럼 그의 움직임은 미세하다. 몰오른 잔디가 그의 형태를 돋보이게 한다.

키가 큰 그는 회색 슈트가 잘 어울린다. 짧은 흰색 머리카락이 금테안경 너머의 눈빛을 이직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코 옆의 팔자주름으로 그가 얼마나 자주 웃는 지 가늠할 수 있다.

우산을 뒤로 넘겨 부슬거리는 비를 느껴본다. 입을 벌려 혀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센다. 하나... 두울, 세엿.

“이제 감각도 없어졌나 보네. 느껴지지가 않아. 젠장!”

“관장님, 뭐 하시고 계신지... 여쭙 봐도 됩니까?”

남자는 흠칫 놀라 우산을 고쳐 쓰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린다.

“사람도. 인기척을 하고 와야지.”

“비 오는데 산책 중이세요?”

차 실장은 투명한 우산을 썼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영긴 굵머리이다. 고집스러운 얼굴이지만 겸손한 사람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그의 어깨가 등직하다.

“이 담장 없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싸웠는지 알지? 그 때를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생각해도 잘 한 일인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관장님.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이곳과 어울리죠. 주변의 환경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담을 없앤 시도는 평가가 좋습니다.”

남자는 입안의 사탕을 굴려 가슴 깊이 향기를 마신다. 상쾌한 페퍼민트 향이 머리와 온 몸으로 퍼진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비 소리도 차갑고 청량하다. 그는 주머니에 찢러 둔 손을 꺼내어 차 실장에게 펼쳐 보인다.

“하나 들겠나?”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들고 껍질 속의 사탕을 입안에 넣는다.  
“껍질은 날 주게.”

남자는 껍질을 반으로 접어 천천히 바스락대며 비 사이로 리듬을 보낸다.

“사람들은 우아하고 멋진 장면을 좋아하지. 그런데 말이야. 우아함은 돋보이는 것이 아닐세. 그저 기억될 뿐이야. 우리 미술관 건축물은 존재감이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미술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있는 듯 없는 듯 사람들의 삶에 스며든 거지. 허허”

너털웃음 짓는 그의 모습은 행복한 듯 슬프다.

“저, 관장님. 연임... 이야기 말인데요. 직원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업적도, 평가도 .... 높으시고...”

“그만하게. 이미 결정된 일이야. 이제 후배들이 뒤를 밟아주시게.”

남자는 사탕껍질의 박자를 다시 맞춘다. 그리고 차 실장을 떠나 미술관 뒷마당의 거대한 조형물 앞을 지나간다. 그 모습이 마치 그림엽서와 같다.

“관장님, 그 사탕껍질. 짐노페디 맞죠? 피아노인가요?”

남자는 사탕껍질을 든 손을 들어 보인다.

차 실장은 외로운 공무원세계의 좋은 벗이었다.

젊은 시절, 그림을 그리던 그가 문화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붓을 꺾었다. 어쩌면 꼬박꼬박 걱정 없이 들어오는 공무원 월급에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었다. 이만하면 참 열심히 살았다. 남자는 뒤를 돌아본다. 차 실장이 저만치 서서 아직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손을 흔든다.

그는 아주 느리게 사탕껍질을 비벼 에릭 사티(Erik Satie)의 짐노페디(Gymnopedi)를 연주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짐노페디 3번 기타와 첼로 연주이다.

저 멀리 그리스 신전, 어린 남자무용수들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 원을 그리고 서 있다. 무엇 하나 걸치기 않은 모습이다. 아주 느리게 몸을 움직인다. 온 몸으로 바람과 비를 느끼며 아주 천천히 춤을 추며 발끝을 끈다. 애잔하고 슬프게. 그 모습은 너무 장중하여 숭고하고 아름답다.

“비스듬히 그림자를 자르고 명멸하는 회오리 밝게 빛나는 판석 위에...

콩따민(J.-P. Contamin de Latour)의 시. 그 다음이 뭐지? 요즘 들어 눈물이 많아져서 안 되겠어. 감상적이 된단 말이지.”

## 4. 아내의 전화

빠곡하게 책들이 꽂혀 있다. 분야별로 다양한 책들이 보기 좋게 분류된 책장. 문화예술에 대한 책들은 표지가 예술적이다. 남자는 책과 신문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만들어진 현실이지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굽직한 선을 두르고 있는 중후한 책상. 그 위에 크리스탈로 된 명패가 놓여 있다. ‘이기율’, 남자의 이름이 또렷한 흰색으로 새겨져 있다.

남자는 의자 뒤로 돌아가 큰 상자에 책들을 넣었다. 빈틈없이 상자를 채운 후 굵은 매직으로 ‘미학’이라고 적는다.

책상 위의 휴대폰이 진동으로 몸을 떠다.

아내이다. 남자는 휴대폰을 들고 창가로 가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민다.

“당신이에요? 여긴 아침이에요. 커피 마시면서 전화하는 중이에요. 커피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최고예요. 당신은 커피 마셨어요? 오늘은 좀 바빠요. 이탈리아는 당신이 잘 알잖아요. 점심시간에는 매장 문을 닫기 때문에 서둘러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일을 다 못한다고요. 당신은 어때요?”

아내는 이탈리아에서 패션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 언제나처럼 그녀의 억양은 리듬 있고 경쾌하다. 단점이라면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점이다. 젊은 시절에는 그 모양이 귀여웠다. 수다스런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시간가는 줄을 몰랐으니까 말이다.

“좋아.”

“아니, 퇴직하기로 했잖아요? 언제죠 날짜가? 부디...”

남자는 그녀가 전화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호를 긋고 있을 상상을 하며 미소를 짓는다.

“신경 쓰지 마. 다음 달 말.”

“맘마. 미아!!”

“당신은 그 단어 일본어 발음처럼 해. 일본 사람인 줄 알겠어. 허허허.”

“안 그래도, 어제 디너쇼에서 어떤 멋진 이탈리아 남자들이 내게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난 남편이 있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지요.”

“허허. 그건 오버야. 이 사람아. 편하게 대해야지. 그 신사들이 당황했겠군.”

“그런가요? 축하해요. 당신. 참, 우리 공주도 잘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리고 고생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아휴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여보.”

“알았어. 7월에 오면 함께 축배를 들자고. 건강 조심하고.”

남자는 창가에서 돌아선다.

“우리 브라운 잘 있죠? 브라운 밥, 잘 챙기고 있죠? 목욕도 잘 시키고 털은 잘 말려야지 안 그러면 피부병 생겨요. 오랫동안 혼자 두면 우울증 생겨요. 여보?”

“응. 미팅 가야해. 걱정 말아요. 끊어.”

반쯤 열린 문틈으로 허 과장이 얼굴을 들이민다.

“관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퇴근 하셔야지요.”

“들어오게. 참 나. 나보다 브라운을 더 챙기니 말이지. 내가 주인인지 개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허허허”

“혹시, 미팅이 잡혀있으신가요? 퇴임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미팅이 있는 건 아니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 내 정신을 빼놓던가, 브라운 애기만 할 사람이야. 아내한테는 브라운의 평가점수가 나보다 더 훌륭하거든. 허허허.”

허 과장은 몇 걸음 안으로 들어와서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내려다 미소를 띤 얼굴로 표정을 고친다.

“관장님, 퇴임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허 과장, 직원들과 조용히 인사하는 것으로 해요. 시끄러운 것은 딱 질색이야.”

## 5. 그리운 어머니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지상으로 오르는 계단. 남자는 이 계단을 수년간 오르내렸다. 전생애 궁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이 근처를 맴도는 보직만 몇 번을 받았다.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며칠 안 남았다.”

남자는 지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을 힘주어 내딛고는 밖으로 몸을 밀어낸다. 50m 전방에 집으로 향하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되어 갈 즈음, 남자는 정류장 앞의 떡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회고 흰 백설기가 먹고 싶었다.



## 6. 57개 계단 위의 집

남자는 입안의 사탕을 굴리며 떡이 든 종이가방을 내려다본다. 길버트 오설리반(Gilbert O` Sullivan)의 클레어(Clair)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다. 클레어의 밝은 리듬은 어느새 57개의 피아노 건반이 된다.

맨 위의 계단에 오르자 남자의 흥얼거림이 거칠어진다.

“어휴~ 이 계단은 줄어들지를 않아.”

‘쿵!! 쿵!!’

벌써부터 남자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대문 안에 있던 브라운이 커다란 코를 문밖으로 내밀며 반가움을 표시한다.

“알았다. 알았어.”

‘띠리릭.’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가 풀리자 문이 열린다.

브라운은 남자를 보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꼬리를 매우 빠르게 양옆으로 흔든다. 커다란 몸을 남자에게 던지다시피 하며 안아달라고 조른다.

“브라운, 이제 난 너를 안을 수가 없어. 네가 커버린 거야.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허.”

남자는 곧장 마당으로 간다.

시대가 높은 남자의 집은 북악산을 그림처럼 앞에 두고 있다. 밤이 되면 북악산은 검푸른 덩치를 숙여 잠이 든다. 산을 타고 빛나는 서울 성곽의 불빛만이 길게 드리어져 어둠을 밝힌다.

“브라운, 나는 네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단다. 네 나이가 사람나이로 쳐서 나랑 비슷해도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다는 의미야. 이 집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지. 아주 낡고 답장도 허물어져가는 초라한 곳이었어.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가족이 작은 방에서 힘들게 살았어.

내가 말이야, 아주 무능력한 아들이고 남편이었거든. 저 아랫동네에는 우리 다섯 식구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곳 산꼭대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야. 추운 겨울에는 말이야, 연탄가게에서 배달도 해주지 않던 곳이야. 비탈지고 사람이 몇 살지도 않았거든. 허허.

그런데 말이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저 아래에서 물을 길어오던 그 때가 그림다. 브라운.”

브라운은 남자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서 검은 산을 바라본다.

“난, 왜 이 산꼭대기에 살면서도 바다 끝에 밀려 와있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 즐겁게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가슴이 허전하다. 이제부터는 말이다. 브라운, 좋은 기억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다.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말이다. 어때?”

‘깡! 깡! 깡!’

“알겠다는 얘기니? 배고프다는 얘기니? 허허허.”

브라운은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크 위로 경충 뛰어오른다.

“그래, 그래. 알았다. 배고프다는 거지? 그래 밥을 먹자. 식사를 같이 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그렇지? 우리 저녁을 먹고 축배를 들자. 나의 퇴임을 축하해 줄 거지? 언제나 고마운 브라운.”

## 7. 명예로운 퇴임식

200여명이 모인 강당에서 천둥치듯 박수소리가 들린다. 남자는 크게 숨을 쉬고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식사 시간이니깐 길게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식사시간을 방해하는 나쁜 관장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허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웃음바다가 된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영원히 제 가슴에 안고 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힘이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다해 주신 것처럼 차기 관장에게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눈 밑이 반짝인다.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이크를 고쳐 잡는다.

“음. 간혹, 일을 하다보면 바다 끝에 서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동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멋진 벗들이 있어 바다 끝에 서있더라도 힘들지 않았습시다. 인생은 순간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늘 멋진 하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끔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두어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이들에게 폐를 주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겠지만 말입니다. 허허허.”

앞줄에 앉아있던 차 실장이 고개를 떨군다. 참고 있던 그의 어깨가 흔들린다. 사회를 보던 허 과장도 뒤돌아선다. 다음을 진행할 수가 없다. 울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직 30년 동안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다. 다만 멋진 하루를 살았다고 매일 밤 되새겼다. 치열하게.

‘이제부터는 내 자신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거야. 춤을 춰 보자고!’

남자는 가슴으로 이야기한다.

## 작가의 말 -

‘바다 끝에서’는 퇴임을 앞둔 기관장의 이야기이다. 창작 시나리오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글을 읽으면서 한 편의 영화를 상상하며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다.

글 속에 등장하는 에릭 사티(Erik Satie)의 명곡 짐노페디(Gymnopedi)는 비 내리는 날 어울리는 곡이다. 시를 읊조리는 것처럼 반복되는 선율, 애잔함과 송고함을 담은 음악에 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심리를 담아 이를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그동안의 시간들을 천천히 회고하며 잔잔한 웃음과 슬픔, 나날의 고귀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특히 짐노페디 3번은 주인공의 마음과 닮았다. 글 속의 숫자는 주인공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57개의 계단이 미술관장으로 부임된 나이였다면 3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다짐이다.

주人公의 친구이자 동료인 차 실장은 이 관장의 공로를 잘 알고 있으며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 관장이 손버릇처럼 사탕껍질을 비벼 무엇을 연주하는지 잘 알고 있는 좋은 벗이다.

7개의 글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장면을 표현한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살필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했다. 미화원과, 직원들, 차 실장, 주인공의 부인과 허 과장, 잊지 못할 어머니, 57개 계단의 집과 브라운, 어진 기관장의 퇴임식. 글의 기획에 맞도록 그려보았지만 장면에 대한 상상의 확장은 독자들의 몫이다.

주人公 이기율은 임기 동안 상하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공무원으로서, 상사로서 맡은 일을 충실히 해왔고 책임감과 현명함으로 문화정책의 바른 방향을 걸었던 인물이다. 30년 동안 자신의 일보다 나라의 일을 중요시했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가난한 화가였다. 젊은 시절, 연탄배달도 마다하는 산꼭대기에 집을 얻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위해 공무원이 된다. 30년 동안 자신을 낮추고 침묵하며 살았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낡은 집은 공간의 느낌을 살려 수리하였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첫 번째로 눈을 맞던 그 집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북약산이 그림처럼 내려다보이는 별장 같은 공간이어서가 아니다. 낡은 그 집은 힘들었던 시절을 견뎌낸 자신을 닮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퇴임식을 하는 날, 주인공 이기율은 자신을 위한 삶을 새롭게 꿈꾼다. ‘춤 취 보자!’는 콘타민(J.-P. Contamin de Latour)의 마지막 시 구절로 마무리 하면서 임기 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그의 열정적인 삶은 임기 후일지도 모르겠다.

### 작가 소개

#### 서정화



칼럼니스트, 작가

방송국 KBS,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근무하면서 미디어와 박물관·미술관, 환경, 공예·디자인관련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국립인천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이다. 민속학, 박물관 교육을 전공하였고 다양한 기획과 글쓰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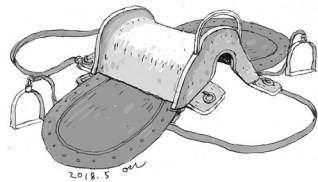
## 예안현감의 박절한 손님접대

삽화 정용연

1630년(인조 8년) 9월 15일, 맑은 날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 10일 경에 영덕수령 이안진(李安眞)이 도산서원을 찾아와 묵었다고 한다. 예안현감인 김진(金璫)이 예전부터 그와 친분이 두터워서 김진 역시 도산서원으로 갔다. 그런데 예안현감은 친구를 맞으러 가면서 한 잔의 술과 한 흡의 쌀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를 도산서원에서 묵으니, 다음날 아침 도산서원의 원장이 새벽에 죽을 올렸다.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하려고 하였는데, 예안현감은 친구 이안진에게 떠날 것을 재촉하였다고 한다. 혹시 그가 더 머물면 자기에게 폐를 끼칠까 염려해서였다. 명색이 친구란 자에게 밥 한술, 술 한잔이 아깝다면 현의 백성들에게 쥐어짠 그 많은 재물은 대체 어디에 쓸 계획인지 모르겠다. 김령은 이러한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다.

더 웃기는 것은 예안현(禮安縣)의 관노 대남(代男)이란 놈이었다. 이놈은 현감이 도산서원에서 자던 날 밤, 안장을 갖춘 예안현감의 말을 타고는 부모에 위치한 사창가로 달려갔다. 서리들과 군졸들, 그리고 도산서원에 숙해 있는 사람들 중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예안현 소속 급창(及唱)이 이 사실을 고하였는데, 이를 다 들은 예안현감은 그를 크게 책망하지 않았다.



아! 어찌 이런 수령과 이런 관노가 있단 말인가. 기강은 크게 무너지고 명분은 크게 문란해져 예안현 고을은 다시 어찌 해 볼 수가 없는 몸쓸 땅이 되었으니, 모두가 이 예안현감 김진 때문이다. 이러한 행실을 한 이유는 그가 평소애 관아의 무리들과 이익을 같이 나누어 그를 관계가 마치 집안의 부자관계와 같았다. 이리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맡겨둔 때문이었다.

## 폐모론 주장자들을 준열하게 꾸짖은 이안진

이 이야기는 예안현감 김진이 친구인 영덕 수령 이안진을 만나보는데 대접이 인색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안진(1576~1640)은 본관이 덕수(德水)이고 자는 보여(葆汝)이다. 좌의정을 지낸 이행(李符)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중추원부사 이원상(李元祥)이고, 아버지는 전라도도순찰사 이광(李洸)이며, 어머니는 공조판서 이증영(李增榮)의 딸이다. 1606년(선조 39) 31살의 나이로 진사에 합격하였다.

1613년(광해군 5) 영창대군의 옥사와 폐모론이 일어났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이를 감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때 그가 성군관 유생 300여 명을 이끌고 궐문에 나아가 항소하였다. 또한, 1618년 동학유생 조경기(趙慶起), 권념(權念), 정복형(鄭復亨), 심지한(沈之漢), 구방(具枋), 노원범(盧元範), 이원충(李元忠) 등과 함께 폐모론을 주동한 정조(鄭造), 윤인(尹訥), 이위경(李偉卿) 등을 참수형에 처하라는 소를 올렸다. 이안진은 이때의 상소로 당시 재위 중이던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서 상소에 참여한 21명과 함께 유적(儒籍)에서 삭제당하고 금고형에 성문 밖으로 쫓겨났다 가 귀양 갔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이조의 주청(奏請)으로 같이 죄를 입었던 동학유생들과 함께 6품직에 발탁되었으며, 이어 청양현감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이어 공조좌랑,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에 제수되었다가 1635년(인조 13)에는 한산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한산 군수로 재직 중 군사 작전에서 숨씨 있게 일을 처리하여 군사들과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들었다. 이후 관직에 물러나 제천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이후 1639년 한성부 서윤에 제수되었는데 그가 병으로 사양하자, 그의 고향인 제천과 가까운 정선 군수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임지인 정선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갑작스런 병이 들어 1640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성품은 효우(孝友)가 돈독하고 언소(言笑)를 잊지 않았으며, 바른 행의(行義)가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공사에서 매사 엄정(廉靜)하고 엄하여 위엄을 갖추었다는 평을 들었다.

# 몽치면 백성이고 흠어지면 도적이다

2010년 개봉한 영화 <방자전>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의 매력적인 주인공들을 넘어, 가히 씬스틸러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또 하나의 배우를 기억할 것이다. 마치 영화 <넘버스리>에서, 후배들을 개 패듯 두들겨 팬 다음에, 애써 분노를 삭이며 “배... 배신이야 배신!”을 외쳤던 송강호를 발견한 그 때 그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의 이름은 송새벽, 변학도를 연기한 배우다.

영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춘향과 몽룡, 방자의 관계와 캐릭터를 살짝 비틀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서사로 조명했음은 물론, 클리셰처럼 굳어져있던 조선시대의 ‘사도 변학도’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풀어냈다. 혹여 19금 영화라는 시각으로만 보면 놓치고 지나갈 미덕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과거를 치르고 합격해 청운의 꿈에 부풀었던 몽룡이, 막상 암행어사라는 직책을 부여받고는, 겨우 이거 할라고 그렇게 노력했나 싶어, 과거시험 동기이자, 지방관으로 부임하게 된 변학도와 마주 앉아 실망감을 토로하자 어눌한 전라도 사투리로 변학도가 이렇게 답한다.

“난 진작에 알았어요, 별 거 아닐 줄. 난 솔직히 더 많은 여자와 잘라고 한 거예요. 아무래도 현감이면 그 고을 웬만한 여자들하곤 다 잘텐데... 전 인생 목표가 뚜렷해요. (원색적인 손동작) 이게 젤 좋아요. 그 외엔 아무것도 관심이 안 가요.”



영화 <방자전> 중 '변학도'(송새벽)가 '춘향'(조여정)을 주시하는 장면  
©영화 <방자전> 홍보 사진

이 부분에서 웃음이 터져 나올과 동시에, ‘아, 변학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방수령이 반드시 목민(牧民)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부임해야 할 필요는 없지(물론 변학도 입장에서선 저절로 원대한 꿈이라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작가 입장에서 허를 찔린 느낌이었다.

변학도의 범상치 않은 캐릭터는 남원에 부임하자마자 향리들이 열어준 환영잔치에서도 나타난다. 사실 우리는 많은 사극에서, 이방이란 인물이 사또 옆에서 콧소리를 내며 “에이~~~~ 사또오~~~” 정도나 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사실 향리와 수령의 관계는 끊임없는 기싸움의 관계였다. 향리들은 2대, 3대를 이어 아전노릇을 해온, 지방의 유지, 터줏대감들이었다. 임기를 마친 수령은 떠나도 향리들은 떠나지 않는다. 백성들이 향리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영화 속 변학도처럼 지방관으로 첫 부임하는 젊은 관리라면, 꿈쩍없이 그 지방 향리들에게기가 놀리기 십상이다. 영화 속에서도 남원의 호방은 변학도에게 술을 따라주며 걸으론 공경하는 체하지만, 은근히 ‘일 만들까봐 걱정이다. 제발 뒛도 모르면서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나 우리의 범상치 않은 변학도가 당하고만 있을순가. 춘향이 말을 안 듣는다는 빌미로, 호방과 춘향, 그리고 방자를 닦치는 대로 때린다. 심지어 주전자 뚜껑으로... 잔치자리는 선혈이 낭자한 공포의 자리로 변한다. 앞으로 그에게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리란 것은 당연지사다.

1609년에 쓰여진 김광계의 ‘매원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박선장은 예안현에 부임하여 마을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자상하고도 소탈하게 고을을 다스렸고, 가혹하게 조사하거나, 민간에서 거두어 들어 비용을 충당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박 현감이 처음 예안현에 부임했을 때 전임 안 현감의 비리와 부패로 인해 관아의 창고가 텅텅 비어 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편이었으나,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마련하여 점차 풍족해져 남아돌기까지 하였다.이전의 수령들은 모두 관아 창고의 원곡(元穀)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마침내 모자라면 민간에서 마구 거두어 들어 원성이 높아지고 그 폐단이 많았으나 박 현감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안 현의 백성들은 모두 현감을 칭송하며 안정되게 살게 되었는데

... 중략 ...

박 현감이 파직된 이유는 다음날 알 수 있었는데, 담당 아전인 오학(吳鶴)이 꾸민 짓이라는 것이다. 박 현감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상부에 예안현감이 세초군(歲抄軍)에 관한 일을 “끝내 거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결국 파직되었는데, 이 일은 담당 아전인 오학(吳鶴)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박 현감을 파직시키려고 일부러 일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재작년부터 지방 수령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자료조사를 해왔는데, 임금을 대신해 백성을 사랑하고 돌볼 수 많은 지방관들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서 흔히 다루던 ‘탐관오리’가 아닌, ‘좋은 지방관’들이 곳곳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좋은 지방관, 즉 수령이란, 무엇보다 수령칠사(守令七事, 고을 다스리는 수령이 힘써야 할 일곱 가지)를 잘 해내는 이를 말한다. 그 일곱 가지는 농상성(農桑盛, 농사를 성하게 함), 호구증(戶口增, 호구를 늘림), 군정수(軍政修, 군정을 닦음), 부역군(賦役均, 부역을 균등하게 함)과, 학교흥(學校興, 학교를 일으킴), 사송간(詞訟簡, 소송을 간명하게 함), 간활식(奸猾息,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이다. 현재라 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나누어 해야 할 일을, 비록 향리들이 있다고는 하나, 수령이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는 무척이나 바빴다. 수령들은 묘시(새벽 5~7시)에 출근해 유시(저녁 5~7시)에 퇴근했다고 하니, 꼬박 열두



시간을 동헌에 나와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동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수령의 7가지 주요 업무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농상성(農桑盛, 농사를 성하게 함)으로  
고을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  
©정석호

단적인 예로, 수령칠사의 첫째인 ‘농상성’을 위해 많은 수령들이 직접 땅을 개간하고, 작물을 재배하거나, 농법서를 쓰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세붕은 풍기군수로 가서, 비로소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풍기인삼의 시작이 그때부터다. 그는 5년간 풍기에 있는 동안 백성들의 구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후에 황해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갔을 때 개성에 인삼을 재배토록 했다고 전해진다.

동래 부사를 지낸 조엄도 마찬가지다. 그는 서른여덟의 나이로 동래에 부임했는데, 당시 동래 부는 ‘왜’와의 외교와 무역을 관장하는 중심지였다. 당시 조선은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면포로 결제했는데, 조엄은 이 과정에 폐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면포 대신 돈을 받아 지급하는 형태로 조선의 생산자와 왜의 상인 모두를 만족시켰다. 그런데 조엄의 특별한 공로는 다른 데에 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통신사로 선발되어 ‘왜’를 방문했을 때, 쓰시마섬에서 고구마 종자를 몰래 들여온 것이다.

조엄의 사행 기록인 ‘해사일기(海槎日記)’에는 고구마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다.

“이 섬에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감저(甘藷) 또는 효자마(孝子麻)라 불리었다. 왜음으로 고귀마(古貴麻)라고 하는 이것은 산약(山藥)과도 같고 무뿌리와도 같으며 오이나 토란과도 같아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다. (...) 그것은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도 먹으며 삶아서 먹을 수도 있었다. 곡식과 섞어 죽을 쑤어도 되고 썰어서 정과(正果)로 만들어도 된다. 떡을 하거나 밥에 섞는 등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흉년 때 지낼 밀친으로 좋을 듯하였다.”

조엄은 고구마 종자를 부산진과 동래부 아전들에게 나누어 주어 재배하도록 하였다. 백성의 구휼작물로 더없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수령들이 백성의 구휼에 애썼던 것은 그만큼 백성의 삶이 팍팍하다는 반증이다. 단지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 재해 때문이 아니라 ‘인재’라 불리는 잘못된 제도와 수탈의 콜라보가 언제나 없는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2014년의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를 보면 이 같은 참상이 잘 드러나 있다. 탐관오리와 지방 토호의 작당으로 땅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긴 백성들은 결국 도적떼가 되는 외엔 살 방법이 없다. 영화의 첫 시퀀스에서 나주목사 최현기 집에 들이닥친 군도 무리의 대호는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읽으며 그를 응징한다.



영화<군도: 민란의 시대> 중 ‘대호’(이성민)가 나주목사 ‘최현기’(김종구)의 집에 들이닥쳐 응징하는 장면

©영화 <군도:민란의시대> 홍보 사진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를 알지 못하니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이어 가득 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영화는 땡종과 양반, 평민, 백정이 뒤섞인 도적떼 군도의 시원한 활약상을 보여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위해 일하는 목민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씁쓸하다. 죽은 나주목사와 그의 후임 나주목사, 그리고 관찰사까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백성들을 엄혹하게 다룬다.

6.13 지방선거로 온 나라가 뜨겁다. 여야의 대립으로 단식투쟁과 막말이 오가는 가운데,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도 못하고 소득 없이 회기를 마감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주지 말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지만, 발의돼도 번번이 유아무야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처럼, 아마도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나마 국민들에게 ‘직접선거’라는 권리가 주어졌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 때문에 평소 큰소리 땡땡 치던 의원 나으리들이 갑자기 점퍼로 갈아입고 먼지 날리는 사거리에 서서 ‘한번만 도와주세요’, ‘씩 다 바꾸겠습니다’ 라 쓰인 피켓을 들고 넘죽넘죽 절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일회성 이든 아니든 국민의 눈을 의식한다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일회를 2회로, 그리고 10회로,

[몽치면 백성이고 흠어지면 도적이다]

---

항상으로 늘리게 하면 될 일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해내도록하기 위해 국민 역시 더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져야 한다.

군도의 첫 시작에서 백정 도치가 말했다.  
“**몽치면 도적이고 흠어지면 백성이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서 도치는 이렇게 외친다.  
“**몽치면 백성이고 흠어지면 도적이다.**”

몽치자, 백성들아! 우리를 편 가르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말고 전진하자꾸나!

## 작가 소개

홍윤정



1999년에 KBS 시트콤 작가로 데뷔, 드라마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작은 영화 <수상한 그녀>, <반창꼬>, <블랙가스펠>, <최강로맨스> 등이며,  
<수상한 그녀>로 춘사영화상 각본상을 수상했다.

# 관아와 수령의 물건 - 동헌, 객사, 내아 -

이번 호 스토리이슈에서는 조선시대 수령의 직무 공간이자 생활공간이던 관아와 수령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물건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아는 지역의 정치, 행정, 교육, 사법 등을 총괄하던 곳으로 다양한 기능의 건물로 구성되었는데, 수령의 주요 업무 공간으로 동헌과 객사가 있고, 개인 공간으로 내아가 있습니다. 관아에서 수령의 주요 활동 공간과 업무와 관련한 물건에 관해 한국국학진흥원 김형수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의 건축(<http://hanok.kosnet.kr>)에 구축된 관아 구성도

## Q1. 관아는 무슨 공간인가요?

관아(官衙)는 중앙이나 지방의 관원(官員)들이 정무를 보는 건물의 총칭으로, 관서(官署)라고도 합니다. 또한 순수한 우리말로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는 좁은 의미로 관아에 해당합니다. 관아 안에는 수령이 집무하는 정청(政廳)인 동헌(東軒)과 그의 식솔이 거주하는 사적 공간인 내아(內衙), 국왕의 위패를 모시고 사신 및 여행자를 맞이하는 객사(客舍), 지방교육을 담당한 향교(鄕校), 그리고 좌수(座首), 별감(別監) 등의 지방양반이 고을의 업무를 자문한 향청(鄕廳), 향리인 육방(六房)의 우두머리와 아전이 근무하던 질청(作廳), 회계 사무를 관장하던 공수청(公

須廳), 노비들의 관노청(官奴廳), 죄인을 가두는 형옥(刑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헌과 객사, 내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재판의 공간 - 동헌



조선시대 전주부 관아 동헌 '풍락헌' ©전주전통문화연구원

### Q2. 동헌은 무슨 공간인가요?

관아의 중심이었던 동헌은 관할 지역의 중요한 업무가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수령이 동헌에서 치른 중요한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령이 부임 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했던 군정(軍政)에 대한 점고가 있습니다. 점고(點考)는 수령이 명부에 점을 찍어 가면서 수효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군사에 대한 점고는 군사의 수를 점검하거나 군기(군대 물품)의 개수와 사용이 가능한지 점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노비에 대한 점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양전, 호적, 호패 등의 성책(成冊)업무였습니다. 성책 업무 중에 토지조사 및 측량 업무와 관련해서는 유척이 사용되었습니다. 셋째는 사송(민사의 소송) 관련 업무로 관할 지역민의 소지(所志)에 대한 처리 등 여러 소송에 대한 처리 업무였습니다.

### Q3. 수령이 쓰는 '유척'의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유척(鎡尺)은 놋쇠로 만든 자이며 조선시대 도량형제도상 척도의 표준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주척이라고 하였다가 육전조례에서 유척이라 규정하였습니다. 암행어사에게는 2개의 유척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는 죄인을 매질하는 태(笞)나 장(杖) 등의 형구 크기를 통일시켜 법에 의거하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나는 도량형을 통일해서 세금징수를 고르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수령과 암행어사가 유척을 쓰는 용도는 같으나 감시대상이 달랐습니다. 수령은 향리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였고 암행어사는 수령이 일을 제대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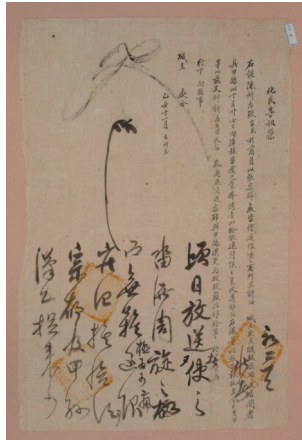
지 감찰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사가 도량형을 감찰했던 것은 지방수령의 자의적인 세 금징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척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 Q4. 소지의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소지(所志)는 민사의 소송(訟)에서 주로 쓰였습니다. 소지는 사서(士庶), 서리(胥吏), 천민(賤民)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입니다. 모두 소지라고 하나 그 내용은 소송, 청원, 진정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당시의 사서들이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에 관한 문서입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그 소지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제음(題音, 간략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또는 제사(題辭, 판결을 길게 내리는 것)라고 합니다.



을축년 11월 이조영이 장종욱에게서 논 값을 추심해달라고 관에 청원한 소지(출처 : 옛문서생활사박물관) 전월 장종욱에게 논 값을 도로 되찾고자 하는 소지를 올려 성주께서 장종욱과 거간인 구갑손을 잡아 10월 27일 내에 갚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기한을 기다려주었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아 소지를 올리니 종욱과 갑손을 다시 잡아 엄히 다스려 이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소지의 종류는 발활(白活) 등장(等狀)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습니다. 등장은 다수가 연달아 이름을 적어 올린 문서이며, 원정과 상서도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입니다. 특히 상서는 등장처럼 다수가 연달아 이름을 적어 관찰사 수령 암행어사에게 올렸습니다. 의송은 소지와 같은 종류의 문서이나 소지는 수령에게 올린 문서이고, 의송은 순찰사나 관찰사에게 올린 문서라는 것이 다릅니다. 의송은 대개 소지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였을 때 올렸습니다.



## 예의 공간 - 객사



안동 선성현 객사 ©스토리테마파크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조선 후기의 객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9호. 1712년(숙종 38)

### Q5. 객사는 무슨 공간인가요?

객사(客舍)는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중앙집권적 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 시설이었습니다. 이 시기 객사는 전패(殿牌)의 봉안과 의례적인 기능을 수용하는 정청(正廳)과 손님의 숙박과 접대라는 실용적 기능을 담당하는 좌우 익헌(翼軒)이 일체화되어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사에 봉안되어 있는 전패는 ‘殿(전)’자를 새긴 나무 패이자 왕을 상징하는 일종의 위패(位牌)입니다. 객사는 완전한 제사시설도 아니며 직접적인 통치시설도 아닌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령들은 부임하게 되면 먼저 객사에 들려 예를 갖추어 인사하였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나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망궤례를 통해 임금에 대한 충성과 목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객사는 외국에서 온 사신들과 공무를 위해 파견된 중앙 관리들이 숙소로 사용하거나 고을의 인사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푸는 기능도 하였습니다.



임금의 궤패를 모셨던 선성현 객사의 정당(좌) 임금의 궤패 봉안 모습(우) ©스토리테마파크



## 생활의 공간 - 내아

### Q6. 내아는 무슨 공간인가요?

내아는 수령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수령의 개인공간입니다. 내아의 건축구조는 당시의 사대부 집안의 안채와 같은 모습을 하였습니다. 안방 대청 건넌방 부엌 찬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위에 곳간 등의 부속 건물이 딸려 있었습니다. 장대석으로 마무리한 낮은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이나 다듬은 돌 초석을 놓고, 네모난 기둥을 세웠습니다. 대청은 연등천장(천장을 만들지 않고 서까래가 그냥 노출되어 보이도록 한 것)을 하고, 온돌방은 종이천장을 하였습니다. 지붕은 대개 팔작지붕으로 단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Q7. 관아 안에 ‘내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아는 수령들에게 정무를 보는 장소이자 생활의 공간이었습니다. 수령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관직을 받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아 안에 수령들이 생활 할 수 있는 내아를 마련한 것입니다. 내아에서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사는 경우들이 존재하였는데,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는 지방관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 Q8. 수령의 공간 ‘관아’와 수령의 주요 직무와 관련된 물건을 살펴봤는데요, 지방관으로서 파견된 조선시대 수령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관아는 수령들에게 정무를 보는 장소이자 생활의 공간이었습니다. 수령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관직을 받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아 안에 수령들이 생활 할 수 있는 내아를 마련한 것입니다. 내아에서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사는 경우들이 존재하였는데,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는 지방관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아는 수령의 생활의 터전이었을 것입니다. 생활하는 장소이자 일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수령은 관아 외에도 업무상 많은 곳을 다니며 일했습니다. 마을마다 수령의 일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수령은 ‘유척’을 통해 토지조사 및 측량을 진행하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지’를 받아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야했습니다. 그리고 객사에서는 정해진 날짜마다 망궐례를 진행하여 조선의 왕에게 예를 갖추어야했습니다.

수령의 임기는 보통 60개월이었으며 10개월을 1기로 해서 6기제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수령들 중에서는 5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지방관이 마지막 관직인 사람이 많으며 지방관을 연이어하는 수령에 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령들은 자신이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챙긴 경우가 많았고, 지방관으로 근무하고 난 이후 상당히 큰 부를 축적한 수령도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들은 대부분은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 리** 하해빈(한국국학진흥원 국학정보센터)

**도움말** 김형수(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수석연구원)

## ‘만인소’ 2018년 아·태기록유산 등재, 한국국학진흥원 세계가 인정한 기록유산 3종 보유

###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자문기구인 국제자문위원회(IAC :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산하 교육연구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의 국가별 센터인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가 6월 1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소했다.

이는 2016년 11월 8일 한국국학진흥원과 IAC 교육연구소위원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약 1년 반의 준비를 거쳐 개소하게 된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개소를 통해 기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기록유산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기록유산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한국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활동을 통해 기록 문화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2018년 5월 말 현재 49만8천여 점의 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은 그것이 가진 가치 발굴에 힘을 쏟아 2015년 ‘유교책판’ 64,226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2016년에는 ‘한국의 편액’ 550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인 아 태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만인의 청원, 만인소’ 2점이 아태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한국국학진흥원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록유산 3종을 보유하게 되었다.



유교책판이 보관된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

목판아카이브 <http://mokpan.ugyo.net>

목판아카이브 사이트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목판에 대한 지속적인 DB화의 결과물로 구축된 콘텐츠이다. 또한 본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교목판 10만장 수집운동’ 및 유교목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에 호응해, 목판 기탁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반인들이 우리 목판인쇄 문화의 의의와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콘텐츠이다.



한국국학진흥원 현판전시실(좌), 진성이씨 노송정종택(眞城李氏 老松亭宗宅)의 편액 '老松亭'

#### 한국의 편액 <http://pyeonaek.kosnet.kr>

한국의 편액(扁額) 사이트는 한국국학진흥원이 편액 DB화 결과물로 구축된 콘텐츠로 편액에 담긴 의미를 '서체별', '공간별', '기능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편액은 건물의 명칭과 건물의 성격을 표시하며, 또한 편액에 새긴 글귀는 매우 함축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건물주의 의리, 정감을 문학과 예술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임오의리를 분명하게 할 것을 청하는 상소 '1855년 만인소'

#### 만인소 <http://maninso.ugyo.net>

만인소(萬人疏) 사이트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1855년 만인소'와 '1884년 만인소'의 제작배경, 내용 및 참여자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다. 만인소는 "만명이 연명하여 올린 상소"이다. 만인소는 조선시대 만여 명에 달하는 재야 유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청원한 상소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상소 운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개소, 세계적인 기록유산 전문가들과 함께 하다

6월1일 개최된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록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소를 축하하고 한국에서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심사와 자문을 맡고 있는 유네스코 IAC 교육연구소위원회 로타르 요단(Dr. Lothar Jordan) 교수와 IAC부의장이자 세네갈 전 국가기록원장인 파파 모마르 디오프(Dr. Papa Momar Diop)가 참가했다. 또한, 현재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 총회 의장이자 현 중국 국가당안국(한국의 국가기록원과 같은 기능의 국가부처) 리명화(李明華) 국장과 아·태기록유산 총회 부의장이자 전 베트남 국가기록원장인 부 티 민홍(Dr. Vu Thi Minh Huong) 박사, 마카오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헬렌 이영(Dr. Helen leong) 사무총장, 유네스코 베트남 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광역 지방 정부인 하띤성 부성장당 쿠옥 빈 (MR. DANG Quoc Vinh)등이 함께했다.

이를 통해 기록유산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에 좀 더 다가서고, 세계적 수준을 자랑했던 한국의 기록문화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발행일** 2018년 6월 1일

**발행처** 한국국학진흥원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36605)  
전화 054-851-0754  
홈페이지 [story.ugyo.net](http://story.ugyo.net)  
블로그 [blog.naver.com/storyugyo](http://blog.naver.com/storyugyo)  
전자우편 [story@koreastudy.or.kr](mailto:story@koreastudy.or.kr)

**총괄/기획** 김민욱(한국국학진흥원 국학정보센터)

**디자인** 김용원(디아이)

**제작** 김기해(단아코퍼레이션)